

추석 가정예배 순서

예배 인도자는 먼저 아래 사항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전 인도자는 대표기도자를 정해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배 인도자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게임기, 텔레비전이 모두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3. 하던 일을 모두 멈춘 후 온 가족이 함께 앉아있는지 확인합니다.
4. 예배 인도자는 예배 전 미리 순서지를 읽어보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요 4:24)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갈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 중 한 명, 혹은 인도자가)

이 문서는 새성실교회(sheem.or.kr)에서 추석 가정예배를 위해서 제작 된 순서지와 말씀입니다.
추석명절 가정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배포되었습니다.

성경봉독 (요한복음 3장 16절)..... 인 도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선포 (설교문 참조) 인 도 자

찬 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 교 문

(예배 인도자는 미리 한 번 읽어 숙지 후 사용합니다)

몇 년 전 EBS에서 ‘개천에서 용 찾기’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과연 현재에도 유효할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속담에 맞는 인물들을 찾는 포맷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아낸 사람들이 고아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진학하고, 판자촌에서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고졸인 동대문 디자인대로 오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제 도시 뉴욕에 진출한 사람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현대들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성공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좌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성공담의 대부분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이뤄낸 사람들을 보며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보편화 시키면 우리들은 모두 실패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성공담은 나와는 거리가 먼, 현실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멀지 않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성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하셨는데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하게 죽은 다음 천국에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온 생애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죽음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영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까지 완성되어갑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우리의 온 삶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가르치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공부가 그림이 음악이 가르치는 교사가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고 거치는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림으로, 음악으로, 가르침으로, 운동으로, 돈을 벌어서, 결국 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생깁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곧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크고 작은 성공과 성취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은 큰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은 또 다른 새로운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의 경험은 개인의 자신감을 높이고, 그래서 세상이 이 성공의 스토리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다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대부분의 실패는 자신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나 불성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이론입니다. 철저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선을, 최고를 이루라는 겁니다. 가능성의 성공은 바로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불가능도 있음이 현실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위안합니다.

못 오를 나무를 오르게 하는 은혜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를 수 없는 것 위에 은혜로 이루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열심이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인 합리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초자연적인 부분을 침범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를 수 있는 일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나 실제 생활의 삶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영역을 은혜가 채웁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연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초자연의 영역에서 은혜로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삶. 구원의 삶. 초자연의 삶을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쉬운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의 기도 혹은 통성기도 후 인도자의 마무리 기도로 마칩니다)

이 문서는 새성실교회(sheem.or.kr)에서 주석 가정예배를 위해서 제작 된 순서지와 말씀입니다.
주석명절 가정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배포되었습니다.